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상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5일 고용복지공단교육관에서 상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생 26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 및 전환 희망자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향상과 함께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2회, 총 4회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도 등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인사 및 노무 실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교육의 완성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였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 감사드리며, 수료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으로 이어져 김제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회적기업 창업 및 전환 희망자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산단, 근린공원 대청소 실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운영

완주산업단지가 클린단산·클린산단의 날을 맞아 대청소를 실시했다.

완주산업단지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클린단산·클린산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완주산업단지내 둔산공원의 5개 공원(중앙, 학골, 매동, 명동, 다복)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원들은 근린공원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불법 현수막 제거, 운동기구 점검 및 보수 등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유원옥 소장은 "산업단지내 근린공원이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총력

완주군, 삼례·이서·소양 총 189억 투입 주민의 소득증대·삶의 질 향상 기여

완주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은 삼례읍, 이서면, 소양면 3개 읍면에 총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읍면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80억원),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0억원)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9억원)이다.

이중 삼례읍과 이서면은 올해 마무리된다.

삼례읍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삼례로 정비', '상생브릿지조성', '철방공원

조성', 주민기초생활확충을 위한 '장옥 및 돌봄 시설조성'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우석대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되면 삼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서면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문화쉼터광장', '빙등제 데크정비', '이서로·언더패스 환경정비' 등을 통해 이서면소재지 진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청소년 문화의집'과 연계해 고유의 테마를 살린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총 59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에 마무리 될 소양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구)면사무소 및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80억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40억원) 등 총사업비 22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신청을 한 상태로 9월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발전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매년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확보를 통해 군민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며 "더 나아가 완주군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양파 농가 시름에 발벗고 나섰다

시·금산면,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적극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올해 양파가 생육환경의 호조로 인한 대풍작으로 과잉 생산됨에 따라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김제시청 전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한 망이라도 더 팔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청과 금산면에서는 지역 읍

식점 및 식품생산업체와 연계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양파 소비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5일 현재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1000명(20톤)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양파 가격하락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재배 농가를위해 지역 사회단체·음식점·지역농협 구매 및 통합마케팅 조직 활용하여 양파 소비에 힘을 보탬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몸에 좋은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며, 양파 농가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대형마트 판로개척과 직거래가 가능한 소비처 발굴 등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청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남철, 소연숙)은 최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위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위원들은 사업성과에 따른 잘 된 점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높은 의견을 나누며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을 상반기 자체사업으로 '청하사랑 작은목욕탕 지원사업'을 만족도 최고의 사업으로 선정하여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상

회금속 오채용대표의 지정기탁금을 이용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저소득층 기탁물품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



는 틈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남철 공동위원장은 "김제시 청하면이 전국에서 최고로 복지체감도가 높고 가장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4일 '제6회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참가한 마을 2팀 모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군,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휩쓸어

구이 안덕마을·경천면 요동마을 1,2위 차지

완주군이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1위와 2위를 휩쓸었다.

완주군은 지난 4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제6회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참가한 마을 2팀 모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완주군 2개 마을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분야에 구이면 안덕마을 ▲경관·환경 분야에 경천면 요동마을이다.

구이 안덕마을(위원장 유영배)은 1위인 최우수상을 차지, 500만원의 상금 수상과 오는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 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모악산 산기슭에 자리잡은 산골마을 구이 안덕마을은 마을 내에 있는 짬짬방 운영을 시작으로 치

유와 힐링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해 6만5000명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유명하다.

경관·환경분야에 출전한 경천면 요동마을(위원장 전병화)은 2위인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2백만원을 수상했다.

요동마을은 58가구 91명이 천년 고찰 화암사를 품에 안고 사는 마을이다. 싱그러운 예코빌 생태관광지 사업을 토대로 마을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주민과 함께한 완주군의 마을사업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완주군의 마을공동체 정책이 완주만의 사회적경제 정책인 소셜굿즈의 밀거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초청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5일 시청 상형실에서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정미경) 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 생활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과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소통,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준배 시장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은 KTX 김제역 정차 운행 등 역점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

누고 김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미경 이사장과 회원들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재능 나눔을 실천해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자"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벽골제, 모악산 등 우수한 문화 하드웨어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다양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김제시가 우수 문화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